실속 재테크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13번째 월급'… 여름부터 챙기면 혜택 듬뿍

저소득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올해 8개 항목 변경

장기 미취업자 中企취직땐 3년간 月 100만원 비과세

근로소득자에게 기본인 세테크 가운데 하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제때에 서류등을 챙기기는 쉽지 않다. 증빙서류를 챙기는 만큼 환급액이 느는 줄 알면서도 놓치지 일쑤다. 연말정산에 왕도는 없다. 관련 세법을 염두에 두면서 각종 소비지출시 공제대상 여부를 따지고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올 연말정산에는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고,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됐고, 미용·성형수술, 보약의 공제는 제외됐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모두 8개 항목이 변경된다. 눈여겨 봐야할 조항은 저소득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조항이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도 확대됐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문턱도 총 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24%로 1%포인트 인하됐다.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은 폐지된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는 확대된다.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 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한다. 또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해외건설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도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폐지된다. 다만 지난해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보약 구입 포함) 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0년 연말정산 주요 내용

월세 소득공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신설〉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자금도 공제대상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에 한함)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	총급여 25% 초과금액
장기주택마련저축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 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금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미용·성형수술비 및 보약구입비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장기 미취업자 특례	장기미취업자가 '10. 3. 12~'11. 6. 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신설〉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특례	15% 단일세율 적용여부만 선택 가능

〈자료:국세청〉

수험생 겨냥 상품 인기

수능을 100일 앞둔 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숙면에 도움을 주는 아로마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백화점은 수험생을 겨냥해 건강식으로 인기가 좋은 전복· 한우사골 등을 30% 가량 할인판매하며, 종합비타민을 비롯해 수면베개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쇼핑몰 환급규정 '제멋대로'

7일내 상품 반품 가능 불구

10곳 중 6곳 청약철회 거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상품을 7일 안에 환급할 수 있는 청약철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042개 쇼핑몰 가운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대로 청약철회권을 공지한 쇼핑몰은 1539개(38.1%)로 집계됐다.

나머지 쇼핑몰은 환급 가능 기간을 6일 이하로 단축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 할인판매나 맞춤제품이라는 등의 구실을 붙여 환급을 제한했다. '환급 불가'라고 공지된 쇼핑몰도 523개(12.9%)에 달했다.

하지만 법 규정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어떤 상품이든 수령일로부터 7일 안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원혜일 책임연구원은 "쇼핑몰이 이런저런 핑계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돈만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등 거래안전장치도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우편물 자동 분류기'

전남체신청 추가 설치

전남체신청은 10일 집배원이 배달할 순서대로 우편물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집배순로구분기를 추가로 우체국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배원의 업무량이 크게 줄어들고 배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북광주우체국과 서광주우체국에 집배순로구분기가 각각 2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올 연말까지 광주우체국·광주광산우체국·목포우체국에 한 대씩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아직도 세무서에 가서 세금내나요?

홈택스서비스 등 전자납부 대세

작년 납부액 42조5000억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154조3000여억원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42조5000여억원이 홈택스서비스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납부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국세청이 최근 일부 조기 공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 가운데 전자납부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전자결재방식으로 거둬들인 국세는 467만8231건, 42조53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87만9478건, 18조9519억원에 비해 건수 면에서는 5.3배, 액수 면에서는 2.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작년 전자납부 가운데 국세청 온라인 세금납부 홈페이지인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175만7045건, 29조5209억원으로 건수 면에선 37.5%, 금액 면에선 69.4%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2005년에 비해 건수는 3.2배, 액수는 2.1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뱅킹은 91만6627건, 8조8941억원으로 건수로는 19.6%, 액수로는 20.9%를 차지했다. 지난 5년 전보다 건수로는 2.8배, 액수로는 1.8배 증가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의 경우 27만619건(5.8%), 2천852억원(0.7%)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합뉴스

법인세 이달말까지 중간예납

광주·전남·북 12월 결산법인

오는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광주, 전남·북지역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상반기(1월1일~6월30일)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광주, 전남·북지역의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지난해 3만6000개보다 3000개 증가한 3만9000개(광주·전남 2만6000개, 전북 1만3000개)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받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신보 벌써 1200억 보증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재욱·이하 광주신보)의 영세자영업에 대한 신용보증액이 1200억원을 넘어섰다.

10일 광주신보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보증액이 12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 1996년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8562억원의 신용보증 실적을 기록했다. 수혜기업도 광주지역 3만8678개 업체에 달한다.

특히 저신용 자영업자, 노점상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0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사업으로 266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국 16개 지역신보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지원액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하이트, 목 넘김 부드러운 '드라이피니시' 출시

하이트맥주는 목넘김 순간에 느껴지는 잡맛을 없앤 '드라이피니시 d(DryFinish d)'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하이트맥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맥주연구소인 덴마크 '댄브루(DANBREW ALECTIA)'와 기술제휴를 통해 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드라이 타입(Dry Type) 맥주다. 맥즙 내의 당분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발효시켜 마지막 목 넘김 순간에 잔 맛이 남지 않도록 하는 드라이 피니시(Dry Finish)공법이 적용됐다.

원료로는 호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아와 북미산 아로마 호프를 사용했다.

가격은 기존 맥주와 동일한 1021.80원(500㎖)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